

굿모닝인천

APRIL 2021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28

04

서남연속 대원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자

정수동 은행나무

굿모닝

2021.04 APRIL

중국인 거리

오정희(吳貞姬 : 1947-)

우리집 앞을 지나는 길은 언덕으로 이어져 있고 언덕이 시작되는 첫째집은 거의 우리집과 이웃해 있었다. 그러나 넓은 벽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창문이나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는 문들은 모두 나무덧문이 완강하게 닫혀져 있어 필시 빈집이거나 창고이리라는 느낌이 짙었다.

큰 덩지에 비해 지붕의 물매가 싸고 용마루가 밟아서 이상하게 눈에 설고 불균형해 보이는 양식의 집들이었다. 그 집들은 일종의 적의로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언덕 아래를 내려다 보며 서 있었다. 언덕을 넘어 선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에도 불구하고 언덕은 섬처럼 멀리 외따로 있었으며 갑각류의 동물처럼 입을 다문 집들은 초라하게, 그러나 대개의 오래된 건물들이 그러하듯 역사와 남겨지지 않은 기록의 추측으로, 상상의 여백으로 다소 비장하게 바다를 향해 서 있었다.



1987년 인천차이나타운 전경 © 사진 김보섭



글 김영승

어릴 적 우리는 그곳을 짬깨촌이라고 불렀다.

어릴 적의 그곳은 을씨년스럽다 못해 무서워 그곳의 어느 코스를 돌아오는 시합을 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내가 늘 일등이었다. 깡다구 시합이었던 것이다. 물론 미리 정해 놓은 그 코스는 양심에 맡겼다. 그 근처 일본식 적산가옥과 함께 그 경계를 넘어서면 그 깊은 밤의 그 짬깨촌은 그야말로 짬깨 한 마리 없는 적막 강산, 귀신조차도 없는 무간지옥이었기에, 나 홀로 당당히 귀신일 수 있어 기뻐다. 중학교 때까지는 귀신 인가 싶어 바라보면 아편에 취한 반라의 여인이어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간 적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우리 학교 너머 화교학교 친구들과 쭈쭈바 내기 농구시합을 하기도 했었다.

“전쟁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는 치열했던 함포 사격에도 제 모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것은 중국인 거리라고 불리우는, 언덕 위의 이층집들과 우리 동네 낡은 적산 가옥들뿐이었다.”(오정희, <중국인 거리> 본문 중에서)

몇 년 전 연말 그 차이나타운의 대창반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주인이 유순화(劉順華) 씨라 혹시 유문화(劉文華) 씨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턱 끝으로 바로 길 건너 중국음식점을 가리켰다. 자기 동생이란다. 유문화 씨는 중학교 때 내가 형이라고 부르던 중국인이다. 나는 아직 그 형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04

APRIL
2021
Vol. 32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1년 4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청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임학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지원이벤트로 가기 | 4월의 시민 목소리 조성소 밤(연수구 원인재로)

CONTENTS

인천 미소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세요 外	04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서구 공동체 라디오	05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④ 남촌도림동	06
푸른 인천 인천의 큰 나무	12
환경특별시 인천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16
자원순환 Q&A ④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이유	20
교통특별시 인천 시민 위한 편리한 교통	22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⑪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26
문화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30
인천 공무원이 간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	32
정책 만화 AI 돌봄전화 서비스	34
시민의 목소리 오디오북 참여 시민	36
문화 캘린더 인천시립무용단 특별 기획 ‘새봄새춤’ 外	38
문화 포커스 봄맞이 공연	40
이미지 뉴스 코로나19 대응	42
시정 뉴스 수소산업 선도도시 인천 선언 外	44
의회 뉴스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4월 말까지 外	48
컬러링 인천 수봉산	50
인포 박스 시민의 좋은 생각이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外	52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④ 전등사	55
소소한 인천사 굴포천 外	56
仁生 사진관 연제나, 봄	57
인천의 아침 개관 75주년, 인천시립박물관 가는 길	58
포토 에세이 천연기념물 제562호 장수동 은행나무	59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세요

코로나19가 이토록 오래 지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덩달아 서민 경제까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민에게 전달한다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이지만, 잠깐 시간을 내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안전한 여행 장소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 임금선 서구 서달로

진정한 봄을 기다리며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생활 밀착형 소식이 많이 담겼으면 합니다. 특히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 박경원 부평구 장제로

일을 통해 꿈을 찾는 도시

일하는 도시 인천을 그려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청년과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다양한 구인 구직 정보가 독자들에게 전달됐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도 궁금합니다.

— 최중희 남동구 문화로

종이로 만나는 인천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입니다. 한 장 한 장 손으로 넘기며 읽고 보는 책은 잠시나마 무거운 시름을 잊게 합니다. 디지털 세상, 스마트 시대라지만 한 권의 책이 주는 친근함과 편안함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굿모닝인천>을 오랫동안 종이책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기한 연수구 원인재로

서구



주민이 직접 만드는 우리 마을 라디오

글 정은선(서구 검암동)

“공동체 라디오 서구FM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행자는 여러 명인데요, 모두 서구 주민이에요. 혼자 진행하는 방송도 있고, 게스트가 함께하는 방송도 있어요.” “우리 마을에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주파수가 몇이에요?”

공동체 라디오 서구FM은 주파수가 없다. 팟캐스트 방송이라 미리 녹음한 것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팟빵’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아이튠즈에서 서구FM을 검색, 또는 PC로 팟빵 홈페이지를 통해 들을 수 있다. 공동체 라디오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이웃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 미디어’다. 주민들이 직접 팟캐스트로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지역 소식이나 정보,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2015년 개국한 서구FM은 인천서구노인복지관에서 진행자 양성 과정을 마친 주민들이 참여한다. 라디오 진행의 꿈을 이룬 진행자들의 연령은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송출되는 방송은 ‘리즈의 만나요 맛나요’, ‘아름다운 기차, 기관사 조혜숙입니다’, ‘서구청소년수 려관과 함께하는 1318 고민타파’, ‘서구 사람들의 행복 찾기’ 등이다. 고정 방송 외에도 이동 스튜디오를 통해 지역 축제나 행사 이야기를 담은 특집 방송도 운영한다. 실버 방송 ‘아름다운 기차, 기관사 조혜숙입니다’는 벌써 100회 방송을 넘겼다. 많은 실버 팬들이 2주마다 송출되는 조혜숙 씨의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구FM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는 다양한 게스트를 초대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리즈의 만나요 맛나요’를 진행하고 있다. 5년간 60회가 넘는 방송을 진행하며 서구청장, 나전칠기 명장, 복싱 세계 챔피언, 환경운동가, 인기 강사, 주부 모델, 인간극장 카메라 감독, 경인방송 DJ, 이웃 어르신,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서구와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마을 미디어 서구FM.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서구FM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기를 기대해 본다.





노스탤지어 흐르는, 도시의 섬

인덕 위의 집 53x33.3cm Watercolor on paper(2000년)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은 순도 100%의 자연을 품고 있다.
흙길을 따라 조금만 들어가면, 언덕 위 낮은 집 그림은 고향 풍경이 펼쳐진다.

‘인천, 그림이 되다.’ 낯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길만 지나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붓 터치를 따라, 인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이번 호는 노희정 화백이 그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섬, 도시의 ‘노스탤지어 ; 그리움’ 남촌도림동이다.



취재 영상 보기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공 씨네 모여 사는,
찬 우물 마을

— 봄이 무르익었다. 수산동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도 작물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다. 토마토가 싹을 틔운 지 이제 두 달. 꽃망울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농부의 마음은 분주하다. 며칠 후 꽃이 피면 벌들을 풀어놓고, 줄기를 바로 세우고, 겹 순도 계속 따줘야 한다. 하지만 땅을 밟고 땀 흘릴수록 생기가 도는 것이 농사꾼 아니던가. “열매를 떠올리면 아무리 일해도 힘들지 않아요.” 햇살 따사로운 오월이면, 귀한 땀방울이 알알이 탐스러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공진균(59) 씨는 대대손손 수산동에 뿌리내려 왔다. 주말을 엮어놓은 듯 산이 아담하게 봉긋 솟아 있는 동네. 오래도록 터를 잡고 살기 좋아 수산리壽山里로 불려왔다. 도심 곁인데 냉정冷井, 발촌鉢村, 경신慶信, 능골 등 자연 부락이 아직 남아 있다.

그가 태어나 살고 있는 찬 우물, 냉정 마을은 곡부공씨曲阜孔氏 어촌공파漁村公派의 집성촌이다. “한 가족인데 내 것 네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시제時祭를 올리고, 어르신 생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지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도 품앗이로 지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이웃들도 동네를 떠나갔다. 농가가 사라진 자리엔 외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전통을 이어가던 집성촌도 어느덧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게 됐다. 고른 한낮, 어디선가 때아닌 닭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공진균, 방옥애 부부.
그들 꿈이 자라는 온실은,
‘첨단자동화 온실 설치 시범사업’으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았다.

가을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 개발의 강풍에서 비껴간, 도시의 섬. 길이 없으니 차도 다니지 않았다. 30여 년 전, 아내는 털커덩털커덩 경운기를 타고 경기도 화성에서 이 마을로 흘러들어왔다. 방옥애(58) 씨는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며 농부의 아내로 살아갈 생각에 마음 조였다. 하지만 자연의 들숨과 날숨에 호흡을 맞추며 살아온 세월. 흙이라곤 만져본 적 없던 새댁은 땅과 맞대어 살아가는 베테랑 농사꾼이 됐다.

“내 땅에서 짓는 농사잖아요. 힘들어도 보람돼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고향이잖아요.” 낮은 집 바로 옆에 높다란 아파트 숲이 들어서고, 차가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가 나고. 긴긴 시간이 느리게 흐르던 마을도 어느덧 변해왔다. 하지만 그 안엔 나고 자란 삶과 나름의 이야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



배나무 유인 작업 중인 서명찬 씨.
가을을 기다리며, 농사꾼은 오늘도
나무를 가꾼다.

서명찬(59) 씨는 1983년 충남 천안에서 인천으로 왔다. 농업학교를 나온 그는 관련된 직장 일을 하다, 15년 전 수산동 언덕에서 배나무를 키우기 시작했다. 햇살과 빗물은 열매를 자라게 하고 바람은 당도를 끌어 올린다. 이 일대는 밤낮의 온도 차가 크고 바닷바람이 불어와 맛 좋은 배가 자라기 적당하다. 도심이 지척이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있어 판로도 넓다.

지금 밭에선 나무에 햇살이 고루 스며들도록 가지를 묶어주는 유인 작업이 한창이다. 이제 사월이면 순백색 꽃눈이 훑날리고, 여름 가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난 가을을 기다리며 살아요.” 농부는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경쾌한 발걸음으로 밭으로 간다. 손길 닿는 만큼 하루하루 자라나는 나무를 보노라면 가슴 부듯하다. 땀 흘린 만큼 거두며 살아가는 것. 도시 한복판에서의 노스텔지어, 농부들이 찾아가는 행복이다.

그리운 4번 버스 종점,
정겨운 우리 동네

— 남촌동南村洞 옛 4번 버스 종점. 마을에서 하나뿐인 버스가 종일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지친 몸을 뉘던 곳. 그 안엔 600살 먹은 은행나무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굴곡진 시간을 묵묵히 견뎌왔을 나무를, 마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지금도 해마다 음력 칠월이면 당제堂祭를 지낸다. 어느 해 여름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질 뻔했을 땐 주민들이 비비람 속에서 나무를 지켜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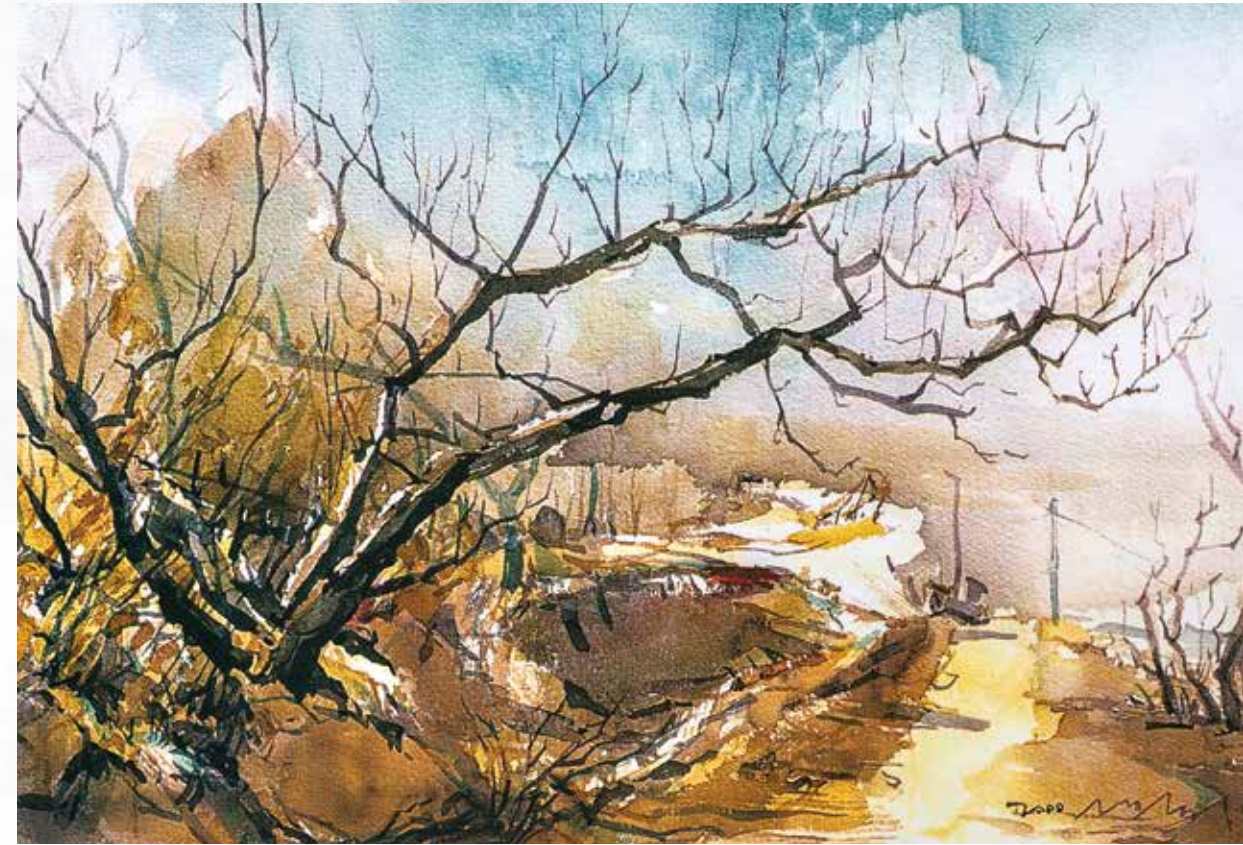
“어릴 땐 동네 사람 모두 이 나무 그늘에서 여름을 냈어요. 그네 타고 옷놀이하며 어울려 놀았죠. 행복했던 기억을 오늘 되살리는 게 도시재생의 시작입니다.” 잊혀가던 이곳은 주민 힘으로 쉽터가 된다. 벌써 버려진 땅에 꽃을 심어놓았다. 동네 사람들이 다시 나무 아래서 어울릴 그 날을 그리며, 주민 협의체 ‘십시일반’의 김채연(57) 회장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올해 초 우리 시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 마을사업’에 남촌로93번길 일대 약 4만5,000㎡가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남촌은 3년간 40억 원을 들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거지 재생으로, 지난해 준비 단계인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부터 마을에 새 숨을



남촌동 옛 4번 버스 종점 모퉁이
버려진 땅에 주민들이 가꾼 꽃밭

봄의 소리 55.2x35.5cm Watercolor on paper(2000년)
봄 햇살이 거울의 빛장을 연, 남촌도리동의 배 농장 풍경.
사월이면 순백색 꽃눈이 훑날리고,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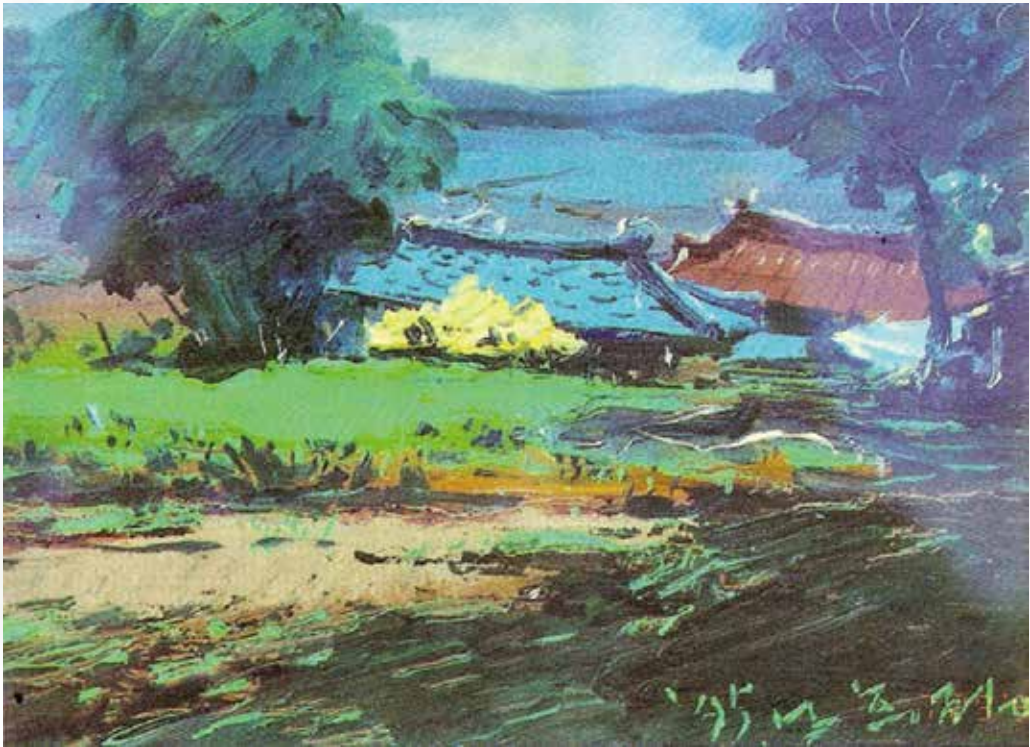
고단해도 꿈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빛나는 보통 사람들의 삶.
동화보다 동화 같은 현실 속 남촌의 이야기다.



남촌 주민협의체 ‘십시일반’의
김채연 회장(오른쪽)과 최경애 사무국장(왼쪽).
주민이 함께 그린 벽화 앞에서.

불어넣었다. 골목 정원을 가꾸고, 재활용 정거장을 만들고, 낡은 담벼락엔 은행나무, 제비, 돌고래… 지역을 상징하는 그림을 곱게 그려 넣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남촌 사람들은 서로 보폭을 맞추고 따뜻한 두 손을 맞잡으며,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

‘십시일반’의 최경애(57) 사무국장은 남촌 토박이다. 학창 시절 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학교에 가기 위해 논밭 사이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다. 선생님들이 대체 넌 어디 살기에 신발에 흙을 잔뜩 묻히고 다니느냐 물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남촌…’이라고 답했다.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또 당연한 듯 살아왔다. 하지만 마을의 흔적을 돌아보고 어루만지면서 ‘내가 고향을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됐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남촌’에 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고 싶다.



남촌 풍경 18x14cm Oil on canvas(1995년)
1990년대 개발의 바람이 불기 전 남촌의 전원 풍경.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남촌에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 넘어
꽃 피는 남촌

— 이재선(77) 할아버지는 동네 일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든 발 벗고 나서 ‘우리 동네 흥 반장’으로 통한다. 그는 충청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평생 일만 하다, 나이 들어 인천으로 왔다. 청학동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살다, 그 집 팔아서 아들 장가가는 데 보태주고 홀로 남촌 빌라촌으로 왔다. 후미진 골목까지 햇살이 닿는 이 동네는, 온 힘을 다해 살아온 그의 삶을 끝까지 어루만질 것이다.

소금꽃이 하얗게 피던 땅에 시커먼 공장 굴뚝이 솟아났다. 1985년 4월, 남동구 폐염전 지대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수도권에 있던 공장들이 인천 바다 가까이 터를 옮기고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남촌이 그 배후 도시가 됐다. 농가를 허문 자리에 쉽게쉽게 지은 빌라가 다닥다닥 들어섰다. 주민공동체 ‘꽃 피는 남촌 두레’의 공병화(62) 회장은 그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있었다. ‘아, 이제 우리 동네도 바뀌는구나.’ 1990년대 ‘강촌’ 남촌동에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쉬움을 뒤로하고 앞날을 기대하기도 했다. 현실은 달랐다. “그때 집들이 제대로 지어졌으면 좋았으련만.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라, 개발업자에 휘둘러 날림으로 집을 올리고 땅도 제값에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떠나갔지요. 동네에 온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동네 흥 반장’ 이재선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꾸민 빌라 벽면 한편엔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봄은 다시 왔다. 2019년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남촌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한창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도시재생대학에서 마을의 앞날을 고민하고, 신문을 만들어 동네 소식을 전하고, 두부를 빻아 이웃과 정을 나눴다. 작지만 큰 변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그들이 내다보는 미래다.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단지가 있고 교통이 발달한 얼마나 멋진 곳인가요. 다시 돌아오고 싶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야지요.”

동화 같은 현실,
내일도 해피엔딩

— ‘섬 같은 마을이다. 섬은 생각하게 한다.’ 동화 작가 함영연(57)은 남촌을 섬이라 부른다. 마음의 온도를 딱 알맞게 보듬어 안으며 작가로 살게 해주는 동네가 고맙다. 강릉, 파도가 파랗게 달려드는 동쪽 바다에서 인천, 잔잔한 서쪽 바다로 왔다. 창밖으로 논밭이 내려다보이는 지은 지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에서 10년을 보냈다. 글 쓰고 또 글을 쓰고 책을 내고, 미동도 없이 고요히 흘러간 시간이었다.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기도 했다. 537번 버스를 타고 인천터미널을 지나 서울에서 하루를 보내고 오후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왔다. 동네에 대해 특별히 여긴 적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사랑하고 있었다. 인천남촌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작품에 나오고, 작가의 말 말미에 ‘인천 남촌마을에서’라고 자신도 모르게 써놓았다는 걸, 훗날에서야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이 마을을 참 좋아하고 있었어요. 작가라면 누구나 자신이 머물고 있는 마을을 널리 알려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언젠간 나도 인천, 남촌의 작가로 불리겠지요.”

그가 문학 중에서도 동화를 택한 이유는 세상에 밝은 기운을 퍼트리기 때문이다. 시와 소설을 지을 땐 깊은 사색에 침잠해 마침내 힘겨웠으나, 동화를 쓸 때는 행복했다. 그가 ‘보배롭다’고 말하는 은행나무 곁 작은 성당과 그 옆의 학교도 언젠간 그의 손끝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고단해도 꿈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빛나는 보통 사람들의 삶. 동화보다 동화 같은 현실 속 남촌의 이야기기가.



그림 노희정

인천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다. 1940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출생, 네 살부터 인천에 살며 창영초, 인천중, 제물포고를 거쳐 서라벌예대를 졸업했다. 중학생 시절 처음 붓을 잡은 그는 1982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작품인 ‘면면’을 비롯해, 사라진 소리 협계 열차 길을 그린 ‘흘러간 세월의 노래’, ‘인천역 내려가는 길’, ‘홍예문’ 등 인천 사람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특유의 감각으로 표현해 왔다. 현재 인천원로작가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와 인천미술협회, 인천구상작가회, 아라희 등 다양한 미술 단체에서 교문을 맡고 있다.



남촌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청호는,
작가의 집이자 작업실이다.
그 앞 벽화는 주민들이 함께 그렸다.



동화 작가 함영연은
방정환문학상, 한정동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우수 콘텐츠 선정작인 저서
<석수장이의 마지막 고인돌>을 들고,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 도서관에서.

기다림과 느림의 미학, ‘나무’



마을 어귀에는 언제나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고, 크고 작은 일들을 지켜본 마을의 큰 어른이었다.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 나무 아래에서 마음을 나눴고, 나무는 격동의 시대를 묵묵히 함께하며 긴 세월을 버텼다. 인천에는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웅골찬 큰 나무들이 많다. 최근 장수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의미 삼아 인천의 큰 나무들을 돌아봤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오인영 미추홀구사진인연합 회장
도움 이루다 푸른인천가꾸기운동시민협의회 총괄이사, 숲&인 연구소 대표



부평초등학교 은행나무

계양구 부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자리한 은행나무는 600살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평도 호부관아의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풍치목으로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조선 시대 배움의 장소에 이어 오늘날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역사의 현장을 모두 한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루다 숲&인 연구소 대표는 “은행나무가 학교 안에 있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왔다. 아마 학교 밖에 있었으면 개발의 현장에서 이미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며 지금도 의미 있는 많은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1호
높이 25m, 둘레 10m, 수령 약 600년
계양구 여사대로 20

장수동 은행나무

노거수 앞에서는 풍요로운 가을의 색깔을 볼 수 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 은행나무는 황금색 폭죽을 터뜨린다. 가지마다 무수히 달린 노란색 리본은, 그렇게 결실의 가을을 축하한다. 누군가의 희망을 바라는 일이 있을 때면 간절히 소원을 빌었던 나무는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됐다. 뿌리 부분부터 다섯 개의 굵은 가지가 갈라져 높게 솟아올라 있고, 가지의 끝이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나무는 손상된 가지가 거의 없이 건강하고 단정하며 균형 잡힌 모습을 지니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562호
높이 28.2m, 둘레 9.1m, 수령 약 850년
남동구 장수동 63-6



초지진 소나무

1656년 강화유수 홍중보가 초지진을 설치할 때 선비의 기상과 지조를 상징하기 위해 심은 소나무로 추정하고 있다. 초지돈대는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군 측의 함포 공격으로 일부 파괴되었고, 1875년 운요호 사건 당시 조선 수비병과 일본군 사이의 포격전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소나무에는 격전 중 날아온 포탄 파편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소나무는 열강의 침입에 맞서 장렬하게 싸운 선조들의 기상을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초지돈대를 의연히 지키고 있다.

높이 12m, 둘레 2.8m, 수령 약 350년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



신현동 회화나무

겉껍이 싸인 야트막한 집들과 골목을 지나 주택가 사이에서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는 회화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며,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 꽃이 필 때 위쪽에서 먼저 피면 풍년이 오고, 아래 쪽에서 먼저 피면 흉년이 든다고 예측했다고 한다. 회화나무는 콩과의 낙엽교목으로 수형과 잎의 모양이 좋아 학자들이 서당이나 서원 등에 즐겨 심어 ‘학자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신현동 회화나무는 원래 이 마을의 당산인 도당산에 있다가 큰 홍수로 인해 마을로 떠내려와 지금의 위치에 심어졌다는 이야기와 어느 지역에서 온지는 알 수 없으나 바닷물에 떠내려와 이곳에 심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천연기념물 제315호
높이 28m, 둘레 6.5m, 수령 약 500년
서구 신현동 131-7



불음도 은행나무

마을을 가로질러 해안에 다다르면 이 섬에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풍채 당당한 은행나무가 먼저 반긴다. 850여 년 전 수해가 심할 때 황해남도 연안군에 있는 부부나무 중 홍수로 떠내려 온 수나무를 건져 이곳에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강화불음도 은행나무의 부부나무인 ‘북한 연안은행나무’는 북한에서 조선 천연기념물 165호로 지정됐으며, 연안군 호남리 호남중학교 뒷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간직한 ‘남북 이산 나무’.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양측의 주민들이 서로 연락해 음력 정월 그믐에 맞춰 각각 제를 지내왔으나, 분단 이후 중단 되었다고 한다. 부러진 가지를 불에 태우면 목신이 진노해 재앙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어 오늘날까지 주민 모두가 정성껏 보호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04호
높이 25m, 둘레 9.7m, 수령 약 850년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산186



영흥도 소사나무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 언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소사나무 군락지로 350여 그루의 소사나무가 자라고 있다. 선조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방풍림으로 심었던 나무들이 모두 죽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소사나무를 구해 구덩이를 파고 심어 정성껏 가꾸었다고 한다. 자갈과 모래로 된 땅, 매서운 해풍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사나무는 긴 세월 곳곳이 버텨내 마침내 숲을 이뤘다. 소사나무의 구불구불한 가지에 새겨진 주름만큼이나 바람에 맞서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외침이 아직 맴도는 듯하다.

천연보호림
높이 3.5~5m, 수령 약 150년
옹진군 영흥면 내리산 91



석모도 보문사 향나무

보문사 석실 앞 큰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는 향나무는 금방이라도 머리를 풀고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은, 마치 용이 용틀임을 하는 듯 기묘한 느낌을 주고 있다. 무슨 큰 뜻이라도 품은 듯이 뒤틀린 태가 목직해 보인다. 6·25전쟁 중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3년 후에 소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보문사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 앞마당에 있는 느티나무와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오래된 나무로서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기념물로 지정됐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7호 | 둘레 3.2m, 수령 약 700년 |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1



갑곶리 탕자나무, 사기리 탕자나무

강화도는 고려 고종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 수도를 옮긴 곳이며, 조선 인조도 정묘호란 때 난을 피해 머물던 장소다. 몽골군의 침입에 대비해 강화도에 성을 쌓았고, 성 바깥쪽에 가시 돌친 탕자나무를 심어 외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향기로운 탕자나무는 관상수가 아닌, 적병의 발을 노리던 조상들의 슬기로운 무기였던 것이다. 천연기념물인 갑곶리 탕자나무와 사기리 탕자나무는 민족을 수호한 강화의 큰 공지를 머금고 있다. 강화에는 나무 하나, 돌 하나 역사적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천연기념물 제78호
높이 4m, 뿌리 부분 둘레 1.5m, 수령 약 400년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16

천연기념물 제79호
높이 3.8m, 둘레 1.2m, 수령 약 400년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35-10

필ᄇ환경 시대, 지구에서 함께 잘 살아가기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Santa Barbara, CA 바다가 원유 유출로 검게 물들었다. 그리고 1970년 4월 22일, 하버드대학교 학생 데니스 헤이즈Denis Hayes가 ‘환경’이라는 인류의 공통된 가치가 담긴 선언문으로 전 세계인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전했다. ‘지구의 날’의 시작이다. 그리고 오늘 ‘바이러스 팬데믹’이 낳은 ‘쓰레기 팬데믹’ 시대. 바야흐로 필ᄇ환경 시대가 왔다. ‘지구를 대신할 또 다른 지구는 없다.’ 지구를 지켜라! 300만 환경특별시 시민이 지구를 지키도록, 우리 시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든든히 뒷받침한다. 그다음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끝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다.

지구를 지켜라. 하나

‘제로 웨이스트’ 시작은 ‘쓰레기 거절’하기

플라스틱의 생산은 5초, 사용은 5년, 분해는 500년 그 이상. 버리는 건 순간이지만 썩어 없어지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일상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쓰레기(Waste)를 줄여서 영(Zero)으로 만들자는 친환경 운동이다.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한민국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420개로 세계 1위.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 종이컵 아닌 텀블러를 쓰고, 플라스틱 수저와 빨대,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단호히 거절하자. 또 포장을 최소화해 쓰레기를 줄인다. 식당 음식을 담아 갈 땐 ‘용기’ 내어 집에서 쓰는 용기를 사용하고, 내용물만 덜어 살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한다. 소비를 줄여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것도 지구를 사랑하는, 진정한 ‘플렉스Flex’다.

제로 웨이스트 상점 ‘소중한 모든 것’은 쓰레기 없는 삶을 돕는다. 천연 성분의 세제를 리필할 수 있고, 다회용품과 친환경용품도 다양하게 만나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환경운동가인 소정(35) 대표는 환경특별시 인천의 행보가 반갑다.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을 감수하는 일. 한 사람이 백 번 실천하는 것보다, 백 사람이 한 번씩 해야 더 의미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개인이 맞물려 움직여야 해요. 인천이 그 중심에서 앞장서 줘서 고맙고 기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수고가 모여 이 큰 세상을 움직이고, 미래를 바꿀 것이다.

‘소중한 모든 것’의 소정 대표



우리 시가 하는 일,
시민이 함께하는 일

‘친환경 3무ᄇ’ 함께해요

인천 시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우리 시 공공기관에는 일회용품, 자원낭비, 음식물 쓰레기가 모두 자취를 감췄다. 이른바 ‘친환경 3무ᄇ 청사운동’. 이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에 인천 시민이 함께한다면, 친환경 도시의 미래는 그리 멀지않다.

친환경 장례로, 희망찬 장래를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접시를 다회용기로만 바꿔도 연 2억1,600만 개를 줄일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인천의료원 등 관내 5개 종합병원,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약속하고 시행 중이다. 내년엔 민간 전체 장례식장으로 확대한다.

※ ‘5R 원칙’ 기억하세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창시자 비 존슨 Bea Johnson은 비우는 삶을 위해 ‘5R 원칙’을 제시한다. 거절하기(Refuse)·줄이기(Reduce)·재사용하기(Reuse)·재활용하기(Recycle)·썩히기(Rot). 지구를 사랑한다면 밑줄 짹~.



내용물만 덜어 파는 친환경 세제(왼쪽)
재자원화하기 위해 모으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오른쪽)

지구를 지켜라. 둘

쓰레기 재자원화,
향기롭게 되살리기

2

행동하는 환경특별시 인천 시민에게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다시 쓰
는 ‘자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량
은 2019년 대비 14.6% 증가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먼저 쓰레기
를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살린다.
커피 찌꺼기(커피박, Coffee粕)도 예외는 아니다. 커피를 추출할 때 원두
는 2%만 쓰이고 98%는 커피박으로 버려진다. 하지만 작은 수고와 정성을
들이면, 생필품부터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까지 귀하게 쓸 수 있다.
시는 최근 버려지는 커피박을 재자원화하기 위해 자치구, 기업과 손을 잡
았다. 중구·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서구,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
경재단이 함께 뜻을 모았다. 지난해엔 시범사업으로 중구, 미추홀구의
119개 카페에서 커피박 55t을 거둬들여 재자원화했다. 시는 올해 참여 카
페를 600개로 늘려 연간 660t의 커피박을 향기롭게 되살린다.
인하대 앞 커피 전문점 ‘카페더스토리’ 입구에는 ‘에코카페 스티커’가 예쁘
게 붙어 있다. “인천시의 친환경 정책을 환영하고 함께할 수 있어 기뻐요.”
신현중(42) 매니저는 내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
하다. 이 가게에서 일주일 만에 쌓이는 커피박은 약 50. 커피박은 각 구에
서 수거해 재활센터로 옮겨 커피 점토로 만든 화분, 벽돌, 연필 등으로 업
사이클링Up-cycling한다.
버려진 쓰레기를 거둬들여 새 숨을 불어넣는 일. 그리 어렵지 않다. 일상에
서 조금만 수고로움을 더하면, 쓰레기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



‘에코카페’ ‘카페더스토리’의 신현중 매니저.
손에 든 커피박은 이틀간 모은 것으로,
커피 200잔을 만드는 데 커피박 3kg이 나왔다.



커피박으로 만든
커피 점토로 빚은 화분과 연필

우리 시가 하는 일.
시민이 함께하는 일

기억해요 ‘비행분쇄’

‘비행분쇄’. 재활용품을 반드시 ‘비우
고, 행구고, 분리하고, 섞이지 않게’
분리배출해야, 다시 쓸 수 있다. 인
천에서 거둔 폐기물의 재자원화율은
2018년 기준 59.8%, 시는 2025년까
지 95%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재활용 너머 업사이클링

인천업사이클예코센터에선 자원순
환 중심의 환경교육과 관련 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업사이클링 전시장
과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공유센터도 마련돼 있다. 032-
212-2929, incheoneco.or.kr

폐가전제품 똑똑하게 버리기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제품
을 버릴 땐,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자. 배출 수수
료도 안 들고, 리사이클링센터로 옮겨
다시 쓸 수 있다. 1599-0903

아름다운 나눔

내 손길이 닿았던 물건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시는 (재)아름
다운가게와 함께 지난해 시청 안에
서 ‘자원·나눔 재순환 캠페인’을 열었
다. 동참하려면 관내 아름다운가게
를 찾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기증
접수한다. 1577-1113



지구를 지켜라. 셋

탄소중립,
오늘 가꾸는 푸른 내일

3

‘탄소중립(Net-Zero)’,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
들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인천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탄소중립’의 친환경 미래
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우리 시는 지난해 ‘탈탄소동맹(PPCA)’에 가입, 탈석탄 의지를 표명하고 기
후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블랙 카본Black Carbon
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 시는 주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 한 그루는 내일 울창한 숲을 이룬다. 가깝게 올해 제
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 숲 등 45개소에 ‘도시 숲’ 10만5,000㎡를
드리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1만㎡당 흡수하는 미세먼지
는 연간 46kg. 도시숲이 우거지면 한 해 483kg의 미세먼지가 사라진다. 회
색빛 도심에 숨통이 트인다.
친환경 미래를 위한 노력은 도심을 넘어 바다까지 아우른다. 숲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 카본Green Carbon,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는 블
루 카본Blue Carbon이라 이른다. 유엔(UN)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바다 생태계가 땅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속도가 약 50배 빠르다.
‘바닷속 탄소 저장고’ 블루 카본이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
다. 시는 인천의 바다와 갯벌이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블루 카본
확대와 해양 생태계 관리’에 나섰다. 침적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
고, 시·모도 갯벌 복원 등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쏟는다.
인천이 품은 광활한 바다와 땅, 그 안에서 지구를 숨 쉬게 할 초록빛 푸른빛
꿈이 자라난다.



‘블루 카본’은 바닷속 탄소 저장고.
광활한 인천 바다에 기후 변화 문제의 답이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수소충전소.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인천의 주 에너지원 전환이 속도를 낸다.
올해 인천엔 수소충전소 5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리 시가 하는 일.
시민이 함께하는 일

‘환경특별시 추진단’ 출범

우리 시가 환경 현안을 추진하는데
중심축이 될 ‘환경특별시 추진단’이
지난달 출범했다. 추진단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자원순환
정책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에 역점을
기울이게 된다.

길 위의, 탄소중립

우리 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차를 확
대 보급한다. 승용·초소형차 4,568
대, 화물차 972대, 버스 83대 보급
이 목표다.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032-440-
4357. 현재 약 500대인 수소연료전
지차도 올해 498대 보급하며, 대당
보조금 3,250만원을 지원한다. 032-
440-4306(시 에너지정책과)

일석이조,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자. 아낀 만
금 현금, 지역 화폐 등으로 돌려받
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www.cpoint.or.kr)를 통해 가입하
거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
청하면 된다.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우리 시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여기서 잠깐, ‘자원순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Q&A로 알아보는 우리 시 자원순환 정책의 모든 것.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인천이 열어가는 쓰레기 독립, 친환경 미래가 보인다.

Q4 우리 시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루 9,230t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쓰레기를 최소한의 깨끗한 소각재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인천은 계속해서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땅에 쓰레기를 바로 파묻는 직매립 방식을 금지 또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 설치에는 전력 발전을 위해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모으는 것 외에 별다른 고급 기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워낙 넓은 매립지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 메탄가스와 악취,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측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에코랜드(가칭)와 자원순환센터는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해 투명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처리 시설은 우리 시를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만드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 감소



재활용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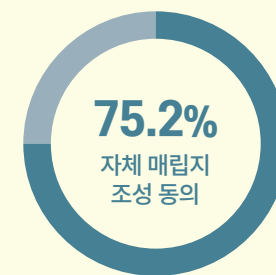
소각 및 매립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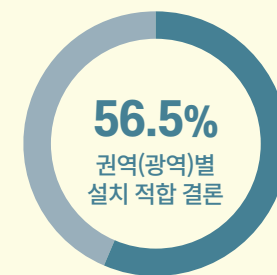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의 코앞이 아닌 먼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누군가, 저마다의 이유로 미뤄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없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기에 시작했습니다. 더이상, 넘쳐나는 쓰레기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시민도 있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75.2%의 시민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동의했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303명의 시민 참여단 역시 권역(광역)별 설치(56.5%)가 군·구별+광역 설치(37%)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그렸던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와 시민 시장 대토론회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염원이 우리 시 자원순환 정책 추진의 원동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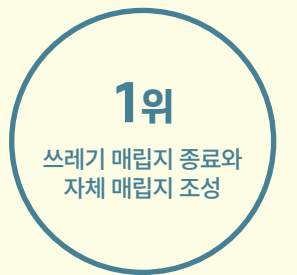
시민 대상 여론 조사



공론화 과정 시민 참여단



시민 선정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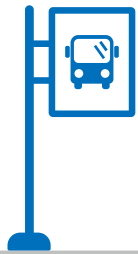


우리 시가 ‘쓰레기 처리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야 사람과 환경이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한, 시민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습 안내】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자원순환 Q&A’. 5월에는 ‘인천에코랜드(가칭)와 수도권 매립지의 차이점’을 주제로 우리 시 자원순환 정책을 들여다봅니다.

버스? 필요할 때마다 부르세요~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제 더 이상 버스 기다리는 일이 지루하지 않다. 내가 원할 때마다 호출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콜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콜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된 신개념 버스, I-MOD가 영종도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취재 영상 보기

‘I-MOD 버스’, 승객이 원하는 노선을 만든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분석해 승객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차량을 배차하는 서비스가 현재 영종도에서 운영 중이다.

‘아이모드(I-MOD) 버스’는 승객이 원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을 호출해 버스 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실시간 수요응답형’ 서비스다.

정해진 버스 노선 없이 승객의 요구에 따라 자율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목적지까지 여러 번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버스 대기 없이 승객 호출로 배차가 이뤄진다. 한번에 6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영종국제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운행하기 시작한 I-MOD 버스는 총 8대이며, 2021년 2월 현재 누적 수송 인원은 4만9,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I-MOD 버스는 영종국제도시의 버스 이용자 대기 시간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I-MOD 버스 요청 시 서비스 대기 시간은 14분으로, 이는 영종국제도시 공영버스 평균 대기 시간인 78분에 비해 64분 감소했다. 또 인천 전체 버스 평균 대기 시간인 18분보다도 4분이 짧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22년까지 송도국제도시·남동국가산업단지·검단신도시·계양1동 등 교통 혼잡 지역이나 주차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I-MOD 버스’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I-MOD 버스 이용 안내

이용 시간 : 오전 5시 30분~오후 11시 30분(호출은 오후 11시까지)

요금 : 성인 1,8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700원 (* 운행 거리가 7km를 넘어가면 1km당 100원 가산)

버스 이용법 : 앱스토어에서 아이모드(I-MOD) 2.0 다운로드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자동 결제정보 등록

→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 선택(버스 정류장 선택) → I-MOD 버스 호출 → 배차 정보 확인하고

배차 진행 실행 → 버스 탑승 시 QR 코드 버스에 태그

*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족이 차량을 대신 호출해 탑승권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다.



주변에서 I-MOD 버스가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종도는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긴 편이죠. 오늘 처음 I-MOD 버스를 이용했는데, 생각보다 버스가 빨리 와서 놀랐어요. 앞으로 종종 이용할 것 같아요.

김민선(영종국제도시 운서동 거주)



I-MOD 버스를 학원 갈 때마다 이용해요. 저희 동네가 버스가 잘 안 다니는 곳이라 학원 가기 불편했거든요. 일반 버스는 배차 간격이 30~40분 정도라 혹시라도 버스를 놓치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해요. I-MOD 버스는 호출하면 대부분 10분 안에 오니까 진짜 좋아요.

정민준(중학교 3학년)



일반 버스는 노선에 따라 해당 버스 정류장을 모두 다 거쳐야 하지만, I-MOD 버스는 수요자 중심의 버스라 면과 구역을 커버하면서 자체적으로 노선을 만들어 나가며 운행합니다. 일반 버스는 몇 개월간의 용역을 거친 후 노선을 완성하는데, I-MOD 버스는 실시간 요청에 따라 노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송병범(I-MOD 버스 운영팀장)



영종역 쪽에서 이마트 근처까지 출퇴근 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서는 장거리 갈 때 대중교통을 몇 번씩 갈아타야 하고, 대기 시간도 길어 정말 불편하거든요. I-MOD 버스는 장거리 이동 때 특히 더 좋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오는 걸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바쁜 시간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동건(영종도 거주)

새벽과 밤늦은 시간, 장거리 가는 분들한테 호응이 높습니다. 새벽 시간대와 저녁 시간에는 주로 공항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낮에는 주부들과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중간에 노선이 겹치는 승객이 호출하면 합승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반 버스 이용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단축되어 점점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남원(I-MOD 버스 기사)



한 걸음 더!!

도시 지역엔 시민을 위한 '100원 행복 버스'와 '100원 행복 택시'가 달립니다

우리 시는 영종도뿐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 취약 지역인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영흥면에서 공공형 택시인 '100원 행복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행복 택시' 이용 대상자는 해당 지역 거주 고령자와 저소득·거동불편 주민이며,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화해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옹진군이 배부한 이용권과 요금 100원을 내면 1인당 월 2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 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강화군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 운행 노선을 주민 수요에 맞게 일부 조정해 10개 읍·면에 13개 노선 9대의 '공공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은 군내 버스 요금과 동일하다. 지난해 강화군 지역의 공공형 버스 이용자는 8만5,847명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옹진군도 소청도와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4개 섬 지역에 '100원 행복 버스'를 운행해 지난해 섬 주민 1만5,453명이 이용했다.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83



세계 최고 기술인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하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열한 번째 등곳길의 종착지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다. 봄별 내려앉은 교정, 계절을 닮은 따스한 정이 흐르는 그 길을 김창울 교장 선생님(35회 졸업)과 이찬용 총동문회장(38회 졸업), 김기춘 동문장학회장(34회 졸업)이 나란히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이찬용 총동문회장이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 새겨진 기념탑 앞에 섰다. 그 문구처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세계 최고 기술인 양성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직업 훈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국내외 대기업 취업과 공무원 임용 등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는 다각적인 직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술 사관학교

‘세계 최고 기술인의 요람’. 학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하니 붙은 문구는 이루고픈 목표나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니다. 오늘날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인천기공)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객관적인 수식어다. 인천기공은 세계 최고의 기술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다.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가 담보한다. 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국제기능올림픽 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교육기관을 조사했다. 대한민국 인천의 인천기공이었다. “무려 42개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왕중왕이 되어야만 국제기능올림픽 출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전 자체도 쉽지 않은데 메달까지 땀다는 건 그야말로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인천기공은 1940년 5월 10일 인천공립직업학교로 개교

했다.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80주년을 맞았다. 성장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1976년 현재의 교명으로 바뀐 후부터다.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이 곧 대기업 취업’이라는 공식이 만연했던 시절, 학생들은 밤낮없이 공부하고 훈련하며 세계 최고 기술인의 꿈을 키웠다. 땀의 결과는 찬란했다. ‘전국제패’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탑이 교정에 세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기념탑이 들어섰다. 크고 단단한 바위에는 ‘세계제패’라는 네 글자가 선명히 새겨졌다. “인천기공은 인천의 자랑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인천기공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1등은 변하지 않는 역사를 지닙니다. 100년 뒤에도 인천기공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계 최고의 기술인을 배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기술, 예술로 승화되다

단단하면 부러진다고 했다. 거센 변화의 바람에 꺾이지 않기 위해 인천기공은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는 제조업과 기술인들을 세상 가장자리로 밀어냈다. 이는 곧 전국 직업학교의 위기로 이어졌다. 인천기공은 달랐다. 탁월한 기술력을 펼칠 무대를 기업이 아닌 공공公共으로 넓히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2019년, 학생 16명이 인천시 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전체 모집 정원의 80%에 달하는 높은 합격률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서울시청 2명, 인천시청 12명 등 수준 높은 기술 인력 배출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역할도 잊지 않는다. KT&G, GS네트웍스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 등 해외 우수 자동차 기업들의 취업자 명단에서도 인천기공인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직업학교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인천기공은 역사와 저력으로 매년 우수한 기술 인력을 사회에 진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른 인성을 지닌 창의적 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학교의 사명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한 감성 교육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조화가 바로 인천기공이 추구하는 미래 인재상입니다.”



왼쪽부터 김창울 교장, 김기춘 동문장학회장, 이찬용 총동문회장. 모두 자랑스러운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출신이다.



‘세계제패’. 김창울 교장이 국제기능올림픽 기념비 앞에서 재학생들에게 학교의 눈부신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동문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가장 큰 자랑이자 경쟁력이다.

학교 본관 뒤편의 연못.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크고 작은 추억이 서린 장소다.(오른쪽)



배우 전무송(17회 졸업)

“그래, 기술을 배워 나도 잘살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자.” 대한민국 연극계의 대부 배우 전무송의 생각도 그때 그 시절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다. 축현초와 인천중을 거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학창 시절 추억 대부분은 ‘밴드부’가 품고 있다. 당시에도 학교에는 여러 동아리가 있었는데, 전무송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밴드부원이 됐다. 멋진 유니폼을 입고 여학교 앞에서 나팔을 불 때는 어깨가 으쓱했다. 방학 때는 합숙까지 해가며 연습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학교 근처에 있던 중국인들 밭에서 시금치와 파, 무, 당근 등을 서리해 먹었던 기억도 지금은 추억이다.



동문, 100년 역사를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다

학교 자랑에 여념이 없는 김창울 교장 역시 자랑스러운 인천기공인이다. 평교사부터 교감, 교장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을 모교에서 후배들과 함께 했다. 그가 생각하는 인천기공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동문’이다.

“동문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적극적인 지원이 오늘의 인천기공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선배들의 모습, 후배들을 살뜰히 챙기는 전통은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진가는 동문장학회에서 확인된다. 인천기공 동문장학회는 인천 지역 고교에서는 처음으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장학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동문들의 의지가 낳은 결과다. 4만5,000명이 넘는 인천기공인들의 진심이 모인 장학금은 후배들을 위해 살뜰히 쓰인다. 그 규모가 매년 8,000만원을 웃돈다. 현업에서 은퇴하는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 퇴직금 일부를 내놓는 경우도 다반사다.

“누적 기부액이 1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너스 장학인상’을 만들어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분이 이름을 올리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선후배들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 대한 애정, 후배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노현래(18회 졸업) 동문은 고인이 된 이후 아너스 장학인상에 이름을 올렸다. 고인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온 가족이 힘을 보태 1억원을 기부했다.

“80년을 넘어 100년 역사를 향해 가는 학교, 학교의 이름으로 하나 된 동문, 동문들을 롤 모델로 삼고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인천기공의 빛나는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짝’ 자유공원의 옛집들

김수근 건축가가 1977년 지은 주택인 ‘이음1977’ 전경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빨간 벽돌과 나무 계단, 빛과 바람의 농도를 적절히 통제하는 창. ‘이음 1977’ 주택에 들어서면 따뜻함과 아늑함이 느껴진다. 응봉산 자락의 경사 지형을 적극 활용하고, 터에서 자라던 나무를 훼손하지 않은 채 지은 건축 기법이 돋보이는 집이다. 인공미를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꾸미는 우리네 전통 정원과 닮아 있다.

‘건축은 빛과 벽돌이 짓는 시’란 철학을 갖고 있던 건축가 김수근이 이 집을 건축한 때는 1977년이다. 건축주인 이기상 전 영진공사 회장과 부인 공경화 씨의 요청에 김수근이 화답하며 자유공원 응봉산 자락에 ‘언덕 위의 벽돌집’(송학동1가 2-4)을 지었다. 집터엔 당시 아담한 건물이 있었는데 이경성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이 세 들어 살던 집이었다. 옛 건물을 허물고 지은 새집은 개항장의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잘 반영한 공간으로 피어났다.

김수근은 일제강점기 정미소였던 건물을 헐 때 나온 벽돌로 내벽을 쌓고, 문화재 보수용 전돌로 외벽을 마감했다. 실내 전등조차 일본에서 직접 사 올 정도로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다.



건축 당시 일본에서 가져온 실내등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에 적합한 건물을 찾던 인천도시공사가 운 좋게 이 건물을 찾아낸 때는 2019년이다. 당시 공 씨가 혼자 거주하던 이 집을 매입한 인천도시공사는 ‘이음1977’이란 문패를 달았고 현재 시민문화 공간으로 꾸미는 중이다.

윤세형(46) 인천도시공사 부장은 “이음1977은 시간과 사람, 공간을 이어주는 시민공유 공간이자 실험적 문화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지 면적 628㎡(190평), 연면적 206㎡(60평)의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이음1977)의 리모델링 공사는 이달 중 본격 시작한다.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공공 개방을 위해 오래된 시설을 수리하는 정도로만 진행된다. 공교롭게도 담장 하나를 경계로 옆집은 인천시역사자료관으로 쓰던 옛 ‘인천시장 관사’이고, 대각선으로 ‘제물포구락부’가 위치한다. 인천시장 관사는 개항 후 중앙동4가에서 잡화상을 운영했던 일본인 사업가 코노 다케노스케(河野竹之助)의 별장이 있던 자리이고 제물포구락부는 서구 외교관들이 모이던 사교 클럽이자 은밀한 정치가 이뤄지던 곳이다.

인천 전역에 ‘역사산책공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인천시는 오는 7월 개방을 목표로 현재 옛 인천시장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중이다. 앞서 지난해 제물포구락부를 음악과 영화,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개방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백민숙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인천 곳곳에 남은 유무형의 자산을 찾아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역사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음1977과 인천시장 관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성되면 송학동은 ‘이음1977-제물포구락부-인천시장 관사’로 연결되는 ‘삼각-복합문화공간’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 공간에서 바라본 인천항 방향 뷰



인천항을 등지고 바라본 이음1977과 옛 인천시장 관사, 제물포구락부 전경 ©사진 인천도시공사



이음1977의 실내.
골목길의 풍경을 집안으로 들여 놓았다.

“나무도 사람과 똑같아요. 아프면 치료하고 잘 돌봐야 하죠”



인천 공무원 최초 ‘나무 의사’ 김천기

“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잖아요. 살아서는 신선한 공기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죽어서도 땀감, 가구, 종이로 사람에게 봉사하는 존재가 나무입니다.

”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집 마당에 있던 대추나무는 간식 창고이자 놀이터였다. 여름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었고, 가을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바구니 한가득 열매를 따갈 정도로 틈 실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추가 열리지 않았다. 가지에선 윤기 흐르는 잎 대신 솔잎 같은 것들이 덩수룩하게 자라났다. 아버지가 나무를 잘라낸 날, 소년은 그루터기 위에 올라앉아 훌쩍거리며 다짐했다. ‘씨이, 내가 크면 나무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될 거야.’ 김천기(58) 월미공원사업소장의 나무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인천 공무원 최초이자 유일하게 ‘나무 의사’ 자격증을 딴 것도 어린 시절 돌도 없는 친구였던 그 대추나무의 영향이 컸다. “지금 생각하니 어린 시절 대추나무는 전염병인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사람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나무들도 아프면 제때 치료해 줘야 합니다. 나무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학교 같은 곳에 있는 수목은 대개 비전문가들이 관리한다. 그러다 보니 약물을 과하게 쓰거나 가지치기를 잘못해 시름시름 앓다 고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나무 의사’는 이런 무지를 예방하고 점점 중요해지는 조경 환경을 위해 2018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제도다.

“2회 때는 1차에서 전국 1명만 합격할 정도로 난도가 높았어요. 저도 네 번 떨어지고 다섯 번째 합격했네요, 하하.” 1988년 인천시 지방임업기원보 9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 33년간 나무와 함께 살아온 그조차 4전 5기로 합격할 만큼 ‘의사 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게 나무 의사 자격증 시험이다. 지난 2월 치른 시험에서도 1차에 1,100명이 응시해 40명(3.6%)만이 합격했다. 이들 가운데 2차 시험까지 통과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스물다섯 살에 인천시 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줄곧 녹지나 환경 관련 과에서 일하던 그가 월미공원사업소로 온 때는 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 사무관으로 진급하면서 월미공원으로 발령을 받아 2011년까지 산책로와 운동장, 정원을 만드는 2단계 사업을 마무리했거든요. 월미문화관, 한국이민사박물관도 그 시기 개관했지요.” 돌아보니 월미공원은 그에게 ‘승진해야 오는’ 특별한 자리였다.

나무는 김 소장에게 부인(52), 슬하의 딸(25), 아들(22)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이다. 잎과 수피의 상태는 괜찮은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는 동공 현상은 없는가. 그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침에 출근해 공원을 돌며 뽕나무, 참나무, 해송 등 공원의 나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을 체크할 때라고.

“아이들처럼 나무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안아주고 칭찬해 주면 더 잘 자랍니다. 나무를 사랑해 주세요. 살아서는 신선한 공기와 편안한 마음을 주고 죽어서도 땀감 가구 종이가 되어주는, 나무는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존재이니까요.”





클로바 케어콜(AI 돌봄전화) 서비스 흐름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굿모닝인천>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성우처럼 반듯하진 않아도 진솔하고 포근하다. ‘모든 시민의 평등한 알 권리’를 위해 지난해 소리로 듣는 오디오북을 론칭한 <굿모닝인천>. 올해 1월호부터는 딱딱하고 차가운 기계음을 걷어내고, 부드럽고 따스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엄마의 목소리 —— 최지혜 독자 (계양구 봉오대로)

아이 셋, 그것도 아들만 셋을 키우는 엄마는 목소리가 변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냥하고 낭랑했다. 조근조근한 목소리에서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소질도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열두 살 첫째와 연년생 둘째, 아홉 살 막내를 키우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을까. 아이들이 잠들기 전 읽어준 책만 해도 100권을 훌쩍 넘겼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가리지 않았다. 대학에서 피아노와 교육학을 전공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택했다. 결혼과 출산 이후 다시 사회에 뛰어든 때도 아이들이 함께였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강사로 활동했던 그에게 목소리는 천방지축 아이들을 사로잡는 ‘아이템’이었다. 그런 그가 <굿모닝인천>에 목소리를 담을 기회를 얻었다.

“남편이 시나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 책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덕에 <굿모닝인천>을 매월 보고 있죠. 오디오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올해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다고 들었는데, 연초라 그런지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됐어요.”

책 읽는 건 자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내 목소리가 앞으로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부담도 있었다. 잘 읽어 내려가다 ‘빠끗’이라도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해야 했다.

“잘하기보다는 편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니 조금 쉬워졌어요.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편안해야 아니까요. 제 목소리로 누군가 <굿모닝인천>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저처럼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의 목소리 —— 이순향 독자 (연수구 솔샘로)

<굿모닝인천>의 20년 열혈 독자다. 2000년 1월, 인천과의 인연이 시작됐을 때부터였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인천 시민이 되자마자 해반문화사랑회, 새얼문화재단 등을 찾아다니며 후원과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 그에게 <굿모닝인천>은 인천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보물창고’였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은 인천시립박물관에서의 봉사로 이어졌다.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대로 공부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인천문화관광해설사로도 활동했다. 개항장, 박물관, 화도진과 인천도호부관아 등 인천의 문화지대를 쉴 새 없이 누볐다.

“<굿모닝인천>에는 인천의 진정한 문화가 담겨 있어요. 발굴하고, 발로 뛰고, 소통해야만 알 수 있는 진짜 문화요.”

열혈 독자답게, 오래전부터 <굿모닝인천>을 수집하고 있다. 한 권 한 권 책을 모으는 일이 소소한 취미가 됐다. 그런 그가 <굿모닝인천>에 조그맣게 실린 오디오북 참여 시민 모집 문구를 발견했다.

“오디오북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기획 자체가 신선하고 좋았어요. 많은 지자체에서 오디오북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예요.”

소리로 듣는 독자들에게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어 각 코너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목소리를 달리할 정도로 정성스레 녹음을 마친 그는 개인 SNS를 통한 홍보도 잊지 않았다.

“시민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제가 모은 책자들처럼, 시민의 목소리도 차곡차곡 모이면 <굿모닝인천>, 인천의 소중한 역사가 되겠지요.”



시민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할 시민을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로 문의 또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전화 : 010-4591-9019




04 Culture Calendar

※
코로나19 안전 수칙에 따른 안전한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니
문의처에 꼭 확인 후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전시	강전희 개인전 4월 9일~1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아라희 작품전 4월 16일~2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4회 뜨란채 등문전 4월 2일~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3회 재능사진동호회 사진전 4월 9일~1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경인인물화작가회정기전 4월 16일~2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20회 미추홀한글서예협회전 4월 2일~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이수빈 개인전 4월 9일~1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21회 대한민국제물포서화대전 4월 23일~2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전시실
	휴과사람들 정기전 4월 16일~2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이달의 공연

01 목 인천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 기념 특별 기획 ‘새봄새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초대 ☎ 032-420-2788	04 일 인천시립극단 정기 공연 ‘십이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원 ☎ 032-420-2790 부평구 법정 문화 도시 지정 기념 ‘다시, 봄’ 부평아트센터 야외 광장 오후 3시 무료(사전 예약) ☎ 032-500-2000 	06 화 인천시립극단 정기 공연 ‘십이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2만원 ☎ 032-420-2790 07 수 인천시립극단 정기 공연 ‘십이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2만원 ☎ 032-420-2790 08 목 인천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 연주회 ‘또 다른 시작 - You are the new day’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032-420-2784
02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93회 정기 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R석 2만원, S석 1만원 ☎ 032-420-2781	선데이 콘서트 우영욱 플루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03 토 인천시립극단 정기 공연 ‘십이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원 ☎ 032-420-2790		

인천시립극단 정기 공연 ‘십이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2만원 ☎ 032-420-2790	17 토 청소년을 위한 ‘스쿨 클래식 콘서트’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3시 전석 1만원 ☎ 032-453-7700		토요 스테이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3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 032-453-7700	
09 금 인천시립극단 정기 공연 ‘십이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2만원 ☎ 032-420-2790	18 일 선데이 콘서트 양상블 별 엘림아트센터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25 일 악극 ‘여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 032-866-6665	
10 토 2021 김창옥 토크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 1566-6551, 1588-2341	21 수 마티네 콘서트 ‘김정원의 낭만가도’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전 11시 전석 2만원 ☎ 032-453-7700		선데이 콘서트 -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실내악 시리즈 5 엘림아트센터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인천시립극단 정기 공연 ‘십이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원 ☎ 032-420-2790	22 목 송문희 Piano Recital ‘Song of Schubert’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070-7776-6882		29 목 2021년도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40-4403	
11 일 인천시립극단 정기 공연 ‘십이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원 ☎ 032-420-2790	23 금 악극 ‘여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30분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 032-866-6665		30 금 인천시립무용단 정기 공연 ‘Movie+ing’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2만원 ☎ 1588-2341	
14 수 2021 커피콘서트 II 신창용 피아노 리사이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2,000원 ☎ 032-420-2737	24 토 악극 ‘여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30분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 032-866-6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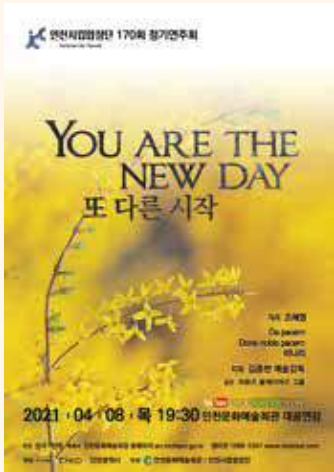
이 봄,
문화로 다시 피다

반가운 일이다. 봄의 시작과 함께 문화의 싹이 움트고 있다. 무미건조했던 우리네 삶이 촉촉해지도록 문화의 물을 주자.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단체 네 곳이 완전한 봄을 알리는 공연을 준비했다. 연주와 노래, 춤과 연기로 피어날 이 봄. 인천에 문화의 꽃이 다시 만개한다.

인천, 노래하다

인천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 연주회
‘또 다른 시작-You are the new day’

인천시립합창단이 정기 연주회 ‘또 다른 시작-You are the new day’를 통해 희망을 선사한다. 이번 연주에서는 상임 작곡가 조혜영의 ‘Pacem in terra’가 초연된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평화를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이다.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를 바탕으로 작곡된 ‘Da pacem’, 천상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무반주 합창곡 ‘Dona nobis pacem’, 경기 민요 ‘비나리’를 노래하며 앞날의 행복을 기원한다. 시작을 상징하는 Ola Gjeilo의 해돋이(Sunrise) 미사 중에서 ‘해돋이’, 힘든 날을 뒤로하고 새날의 소망을 노래하는 ‘You are the new day’,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등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들도 올려 퍼진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의 기운을 담은 ‘봄아 오너라’, ‘강 건너 봄이 오듯’과 같은 익숙한 음악들도 감상할 수 있다.



일시 : 4월 8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전석 1만원
문의 : 032-420-2784



일시 : 4월 30일 오후 8시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2만원
문의 : 1588-2341

인천, 춤추다

인천시립무용단 정기 공연 ‘Movie+ing’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온라인으로만 상연되어 아쉬움을 남겼던 ‘Movie+ing’을 객석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상임 부안무가 전성재의 창작 무용 ‘Movie+ing’은 영화 음악을 통해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과 추억을 춤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2021년 버전으로 새롭게 돌아온 ‘Movie+ing’은 ‘Movie’를 더욱 직관적으로 드러내 영화와 음악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안무가의 해석을 거쳐 춤으로 형상화된 영화 속 음악은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의 살아 있는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감정으로 되살아난다. 음악과 어우러져 펼쳐지는 현대미술가 최광파의 작품, 그 작품과 하나 되는 무용수들의 뛰어난 테크닉과 감정 표현이 어우러져 영화 속 한 장면이 예술처럼 펼쳐진다. 춤과 음악, 영화 그리고 무대를 가득 채울 미술 작품까지, 다양한 예술 장르를 하나의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인천, 연주하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93회 정기 연주회 ‘로맨틱 시리즈 I. 사무치는 아름다움’

찬란한 4월, 찬란했던 낭만주의 시대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제393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사무치는 아름다움’이라는 부제에 걸맞은 깊은 여운의 음악 세 곡을 감상할 수 있다. 첫 곡인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는 북유럽의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왈츠가 끝남과 동시에 죽음이 찾아오는 정경을 그린다.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섬세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연주의 대미는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작품 교향곡 6번이 장식한다. 희열과 절망이 교차한 차이콥스키의 삶이 녹아든 명곡을 인천시립교향악단만의 해석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사무치는 음악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4월의 밤이 기대된다.

일시 : 4월 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 032-420-2781



일시 : 4월 3일 오후 3시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2만원
문의 : 032-420-2790

인천, 연기하다

인천시립극단 정기 공연 ‘십이야’

이 봄, 웃음꽃이 활짝 핀다. 인천시립극단이 봄의 활기 가득한 셰익스피어의 대표 낭만 희극 ‘십이야’로 2021년의 첫 대면 공연을 시작한다. ‘십이야’는 1592년 전염병으로 문을 닫았던 런던 극장이 재개관 당시 선보인 첫 작품으로 유명하다. 외모가 똑같은 세바스찬과 바이올라 쌍둥이 남매의 얽히고설킨 사랑을 재치 있고 유쾌하게 그려낸다. 이번 무대는 한국 연극계에서 신체 움직임을 활용한 연출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연출가 임도완과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다. 독특한 춤 선의 움직임,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음악과 노래가 더해져 셰익스피어 극의 진수를 선사한다. 일인다역을 소화하며 종횡무진 무대를 휘저을 배우들의 활약에 풍성한 볼거리가 어우러져 웃음과 활기로 피어난다. 기나긴 코로나19로 고통과 시름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MAGE NEWS ◦

01

적극적



#인천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30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다각적 지원책 마련으로 선제 대응

02

입체적



#백신 접종 본격화
#연수구, 서구, 부평구 #권역별 예방접종센터 운영
#동구, 강화 4월 중 운영 목표
#4월 1일 75세 이상 접종 시작

03

모범적



#인천의료원 고안 혁신 방역 모델 #드라이브 스루
#표준화 기구 신규 작업 표준안 채택으로
#국제 표준 진료 시스템 진입 기대

04

포용적



#서민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저소득층 가구 기초 생활 보장
#각계각층 맞춤형 복지로 위기를 함께 극복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플러스

- + 우리 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인천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 + 4월 7일부터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 + 우리 시는 인천대공원 호수에 전국 최초로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한 산불 진화 헬기 담수용 저수조를 설치했다.
- + 우리 시는 지난 3월 29일 인천시청 신관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 + 인천산림조합, 강화산림조합, 옹진부천산림조합 등 산림조합 3곳이 나무시장을 열어 직접 재배한 나무를 시민들에게 시중보다 10~30% 싼 가격에 판매한다.
- + 우리 시가 기존에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
- + 우리 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에 냉난방 기능과 공공 와이파이 등 편의 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 NEWS BRIEF ◦

수소산업 선도도시 인천 선언

우리 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인천 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2일 SK인천석유화학 행복드림관에서 인천 서구, 현대자동차(주), SK E&S와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향후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자동차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 재정·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서구는 수소산업 기반의 구축과 환경 개선, 안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수소경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차 산업 육성과 수소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기반구축 실증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SK E&S는 인천시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인천형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해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인천형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02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리 시는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선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인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 16만7,000명으로, 사전에 대상자로 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예방 접종은 예방접종센터로 운영되는 연수구 선학체육관과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에서 진행한다. 시는 동구와 강화에 4월 중순을 목표로 예방접종센터 추가 운영을 준비하는 등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시 자치행정과 032-440-2425

금연구역 확대...

4월부터 횡단보도 산책로 등 흡연 시 5만원

우리 시는 4월 7일부터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이다. 시는 공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장, 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기존 금연구역 7만여 개 외에 군·구 협의를 거쳐 신규 금연구역의 세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건강증진과 032-440-2723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확대 시행

우리 시는 커피 찌꺼기를 자원화하는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 3월 3일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커피박)를 활용해 제품화하는 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인천시와 중구·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서구,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이 참여했다.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단 2%만 사용되고 98%는 생활폐기물로 소각 또는 매립되는 커피박을 활용해 제품화하는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카페 600곳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간 660t의 커피 찌꺼기를 재자원화할 방침이다. 시 자원순환과 032-440-3573

인천시청 신관 3월 29일 개청식... 민원불편 크게 해소

우리 시는 지난 3월 29일 인천시청 신관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인천시청 신관은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 월동) 신영 구월지웰시티 오피스동이며, 현 청사와 직선거리 150m에 인접해 있다. 일자리경제본부를 비롯한 4개국 31개과 직원 622명이 입주했다. 1986년 준공된 시청사는 현재 300만 인구 및 행정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지난 2015년부터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미추홀타워 일부를 임대 사용 중에 있었으나, 송도동과 구월동으로 이분화된 청사 운영으로 시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나 본청 인근 오피스 건물을 매입하게 됐다. 시 총무과 032-440-2652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

우리 시가 기존에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중복장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고,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장애인증명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 택시물류과 032-440-3802



인천대공원 호수에 전국 최초 사계절 ‘헬기용 산불 진화 저수조’ 설치

우리 시는 인천대공원 호수에 산불 진화 헬기 담수용 저수조를 설치했다.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 저수조는 지름 6m, 높이 1.9m 규모의 스테인리스 원형 그물망 형태로 제작됐으며, 물을 계속 돌게 하는 기능을 갖춰 겨울철에도 담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산불 진화 담수지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1995년 조성된 인천대공원 호수는 인천과 경기 시흥 지역을 담당하는 산불 진화 담수지로 지정되어 산림청 헬기는 산불 발생 때 호수의 물을 산불 진화에 이용해 왔다. 그러나 호수 바닥층의 침전물이 산불 진화 헬기 흡입 펌프를 막아 헬기 운영과 안전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해 담수 확보가 어려웠다. 인천대공원사업소와 산림청 서울항공관리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실무 협의를 이어온 끝에 사계절 담수용 저수조를 고안해 설치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032-440-5834

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10~30% 싸게 판매



인천산림조합, 강화산림조합, 옹진부천산림조합 등 산림조합 3곳이 나무시장을 열어 직접 재배한 나무를 시민들에게 시중보다 10~30% 싼 가격에 판매한다. 나무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 조경수, 초화류, 잔디 등이며 나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료, 기자재도 함께 판매한다. 나무시장에는 전문 임업기술자가 배치돼 나무의 선택 및 식재 방법, 기르는 방법 등에 대해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시 녹지정책과 032-440-3682

‘인천통일관’ 새단장, 6개 테마 눈길

우리 시는 지난 3월 25일 인천통일관을 새롭게 단장해 재 개관했다.

인천통일관은 인천 유일의 통일교육장으로 1994년 12월 개관한 이래 연평균 13만 명이 찾는 인천의 대표적인 체험형 통일교육 공간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인천통일관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 염원, 평화로 가는 길, 통일을 향한 노력(역사·정치·문화), 통일의 관문 2030 미래 이음, 통일 향수 하나 된 통일 한국, 고향의 봄날과 통일 염원 등 6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 등 통일 세대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함으로써 인천통일관이 실증적인 통일 체험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시민정책담당관 032-440-2182

수기해수욕장에 카약·카누 계류장 설치

우리 시는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웅진군 북도면 수기해수욕장에 카약·카누 계류장을 설치한다. 수도권에서 1~2시간 내 방문이 가능한 웅진군 수기해수욕장은 최근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명소다.

시는 데이트와 체험학습 등으로 매년 카약·카누 이용객이 늘고 있다고 보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계류장을 마련한다. 시와 웅진군은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해양항만과 032-440-4813



냉난방·와이파이 등 버스 정류장 편의 시설 확충



우리 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에 냉난방 기능과 공공 와이파이 등 편의 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우선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950개 정류장에 추가 설치해 총 3,500개 정류장에서 운영한다. 또 45개 정류장에는 송풍기를, 65개 정류장에는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등 냉난방 편의 시설도 확충한다. 버스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기(BIT)도 새로 200대 설치하고 노후 BIT 100대는 교체한다.

이밖에 LED 조명 시설 45개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버스 표지판 350개가 신형으로 교체해 도시 미관도 개선할 전망이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652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확대

우리 시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본부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4,2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나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며,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인천 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하이원 톨판 대리점(1899-6804)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인천 스타트업파크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스파크 IR Day’ 프로그램 참여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및 투자자 네트워킹 확보를 목적으로 약 6개월간 진행되는 펀딩 프로그램이다. 지원 자격은 4차 산업 핵심기술, 스마트시티, 비대면, 바이오·헬스케어 등 네 가지 분야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소재 본사·지사·연구소를 둔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고 국내외 IR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신청 할 수 있으며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30개사를 선정한다.

시 스마트시티과 032-453-7476

‘시민 체감형 일자리 발굴’ 본격 시동

우리 시는 일자리 정책이 실제 시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위원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시민 체감형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 26일 ‘제2기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인천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에 대한 조정과 평가 등의 역할을 하는 민관거버넌스로, 시민의 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 청년, 여성, 장애인, 기업·경영인, 학계 등이 참여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인천시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72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최종 선정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은 지역과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현장과 밀착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확대 발굴과 지속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3개년 동안 총 12억원(국비 6억원, 시비 6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인천형 관광두레 예비PD 발굴 및 육성, 예비 주민사업체 발굴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광진흥과 032-440-4047

‘어린이 보호 최우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육 강화

우리 시는 최근 발생한 중구 신흥동 신광초교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대처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이라는 목표로 2021년도 28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설치,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노란신호등,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내실화와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사,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교육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시 교통정책과 032-440-3866



◦ COUNCIL NEWS ◦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4월 말까지



인천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화훼농가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가 ‘꽃사랑, 꽃나눔, 인천화훼인 花이팅’이라는 주제로 펼치는 이번 캠페인은 릴레이 챌린지 형식으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이어진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학식·졸업식 등 각종 행사 축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화훼인들을 돕고자 캠페인과 함께 모금 활동으로 진행된다. 모금 활동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전액 인천지역 화훼농가와 자활센터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농협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은 지난 8일 화훼농가를 찾아 인천지역 화훼농가들의 현실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같이하겠다는 의지로 하우스 안에서 일손을 돕기도 했다.

전국 최초 의회 발전 10대 혁신 과제 선정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의회혁신 협업TF’가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10대 혁신 과제’를 내놴다.

‘의회혁신 협업TF’는 그동안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의회 운영 등을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 그 활동 성과로 이번에 자치분권 2.0시대를 먼저 실천하는 의회, 청렴 사회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의회, 업무 전산화로 소통이 빠르고 원활한 의회,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의회,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의회,

성 평등 가치를 존중하는 의회, 의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회,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지방자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의회 등 ‘의회 발전 10대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행정안전위, 인천지역 금융 불평등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인천지역 금융 불평등 해결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금융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금융 소외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안 금융인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지역 차원의 대안 금융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 금융기관들이 조장한 금융 배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인천형 지역공공은행 시스템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 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문화복지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인천형 복지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과 현안 사항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기존 인천복지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 서비스 지원 기능을 융합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한 이후 처음 이뤄졌다.

문화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인천형 복지연구와 정책개발, 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시민력 강화지원,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지역 복지 플랫폼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경제위, 농업기술센터와 부평정수사업소 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부평정수사업소를 찾았다.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인천 농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시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시 직속 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기존 청사보다 약 3.5배 넓은 신청사로 이전했다. 또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부평정수사업소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3개 구 33개 동, 32만 1,000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1정수지 주밸브 및 신축관 교체 공사를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수계전환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 수산기술지원센터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현안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수산기술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옛 웅진군청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총사업비 31억3,600만원을 투입, 지난해 12월 현 청사(미추홀구 용현동 소재)로 이전했다. 규모는 연면적 약 1,000㎡, 지상 3층 건물에 어업인 교육장(2층)과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3층)을 갖추고 있다. 건설교통위는 이날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한 연구 과정 견학과 함께 거래 이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인근 학교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 현장 및 인근 학교인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 주얼리고등학교 등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학교의 교육활동 지장 여부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계획됐다.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공사 현장과 학교 3곳을 돌아보며 공사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한 후 공기질 및 소음 관리, 안전한 통학로 운영 등을 철저히 당부했다.

<인천愛의회> 구독 안내

인천의회저널이 시민이 뽑아준 새 이름 <인천愛의회>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愛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愛의회>는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5
웹진으로 보기 www.icouncil.go.kr/journal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환경특별시’ 인천은 168개 섬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삶에 심포를 적는 여유와 다채로운 매력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자연.
인천 작가의 스케치에 시민 여러분의 색과 빛을 입혀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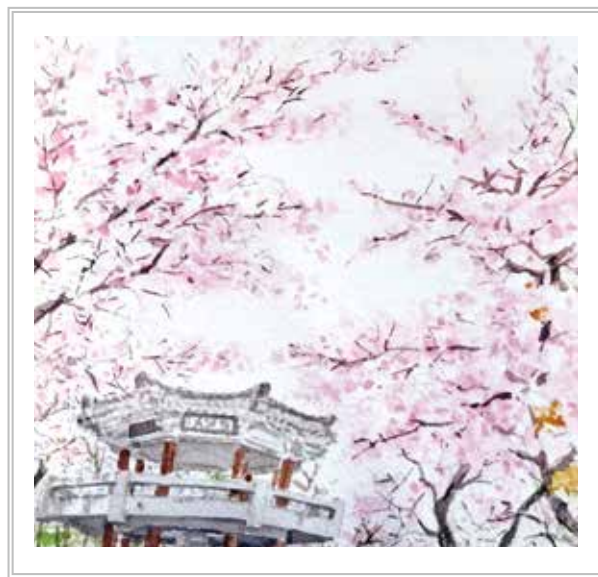
‘팍, 팍팍, 팍’ 봄이 터지는 수봉산



황순영 작가



인천 출생으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 등을 통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미추홀구에서 진행하는 벽화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했으며, 교과서 삽화 등에도 작품을 게재하며 특유의 친근한 화풍의 작품을 선보였다.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인물 드로잉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삶 속에 내재된 우리네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황순영 작가의 채색 가이드

▷ 3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학진 미추홀구 낙섬동로



윤소희 동구 화도진로



김한그루 연수구 새말로



김지유 중구 서해대로



안선희 남동구 장아산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기간 : 2021년 4월 20일까지 문의 :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봄이 완연해지면, 수봉산은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인다. ‘팍, 팍팍, 팍’ 팍콘 터지듯 벚꽃 터지는 수봉산은 인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 중 하나다. 수봉산이 품은 수봉공원에서의 추억은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개쯤은 갖고 있음직한 이야기거리다. 조선 시대 수봉산은 갯골을 따라 바닷물이 들어와 밀물 때면 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우뚝 서 있는 산이었다. 그래서 이름도 ‘봉우리’를 따 수봉산이다. 그 옛날 갯골은 모두 메워져 시가지가 됐지만, 도심 가운데 우뚝 솟은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 봄이 다가기 전, 수봉산에 올라 새하얀 봄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일이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INFO BOX ◦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시민의 좋은 생각이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일상과 관련된 정책 중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의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온라인 정책 담론장 ‘토론 Talk Talk’을 진행합니다.

기간 : 4월 16일까지
주제 :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포획 지원
참여 방법 : ㉡ www.incheon.go.kr 내 토론 Talk Talk에서 온라인 찬반 투표 및 댓글 토론
이벤트 :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지급
당첨 발표 : 4월 23일
문의 : 시 시민정책담당관 ㉠ 032-440-2418

02 전문분야 배우며 새봄을 여세요

서부여성회관에서 2021년 제2기 사회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 : 4월 19일~30일
교육 기간 : 5월 3일~7월 17일(11주 과정)
교육 대상 : 만 18세 이상 인천 거주자(전체 20% 남성 수강 가능, 일부 강좌 제외)
수강료 : 3만6,000~6만원(교재·재료비 별도)
신청 방법 : ㉡ www.incheon.go.kr/wiw(선착순)
교육 과목 : 헤어미용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바리스타, GTQ포토샵, 풍물난타, 초급중국어회화, 떡제조기능사, 유튜브크리에이터 등 76개 강좌
문의 : 서부여성회관 ㉠ 032-458-7360

03 노인돌봄종사자 당신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노인 돌봄 시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무료 지원합니다.

[노무 상담 및 온라인 상담]
상담 주기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6시
상담 내용 : 근로 계약,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연차 및 휴가 상용,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방법
- 노무 상담 : 사전 예약 및 운영 시간 내 전화 상담
- 온라인 상담 : ㉡ www.inlife.or.kr

[심리 상담]
상담 주기 : 상시 운영
상담 내용 :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척도, 범불안 장애, 자살 위험도 검사 및 고위험군 지원
상담 방법 : QR 코드 또는 ㉡ bit.ly/2ZxflgN
문의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032-715-7681



04 치매, 모두의 관심이 희망이 됩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에서 사회 활동 경력과 경험을 살려 활동할 치매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접수 기간 : 4월 9일까지
모집 대상 :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미취업 인천 시민
참조 : ㉡ incheon.nid.or.kr
활동 혜택 : 참여 수당 및 활동 실비 지급
문의 :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032-472-2028

05 오래된 맛과 정성, 오래오래 이어가게

우리 시가 숨겨진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오래된 가게를 발굴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 대상 : 부평구와 계양구 내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선정 규모 : 10개소
지원 내용 : 시설 환경 개선비,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금액 : 가게당 최대 500만원
*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 정비하는 범위
홍보 지원 : 인증 현판 제공, <굿모닝인천> 및 SNS, 온라인 마케팅
접수 기간 :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방법 :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방문 및 우편 접수
참조 : ㉡ www.incheon.go.kr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7

0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休캠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2021년 인터넷·스마트폰 休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정 : 5월 26일~6월 2일, 7박 8일(교육청 협조 출석인정 가능)
장소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라북도 무주)
대상 : 남자청소년(14-16세) 24명
비용 : 식대 보조금 5만원(취약 계층 무료)
신청 기간 : 4월 30일까지
문의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07

07 당신도 ‘정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수문화원에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리수납전문가 2급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 : 4월 8일~7월 8일(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정오
모집 인원 : 만 60세 이상 참가자 20명
접수 방법 : 연수문화원 방문 접수(선착순)
장소 : 연수문화원(청학문화센터 2층)
수강료 : 무료(재료비 2만원 별도)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08 ‘나는 인천입니다’ TV 광고 론칭 이벤트

우리 시가 도시 브랜드 TV 광고 ‘나는 인천입니다’ 편 론칭 기념으로, 퀴즈 이벤트, 시청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TV 광고 퀴즈 이벤트]

응모 기간 : 4월 11일까지
응모 방법
1. 인스타그램 도시의 기억전(@memory_of_Incheon) 팔로우
2. TV CF 남녀 주인공의 정체(두 글자) 댓글 남기기
3. 댓글에 친구를 @태그하면 당첨 확률 UP!
경품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모바일 쿠폰 30명



[TV 광고 시청 인증샷 이벤트]

응모 기간 : 4월 12일~ 30일
응모 방법
1. 인스타그램 도시의 기억전(@memory_of_Incheon) 팔로우
2. 광고 영상 인증샷을 #나는인천입니다 #all_ways_Incheon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 인증샷 예시 : CF가 노출된 TV, 전광판, 지하철 광고 화면 혹은 그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 촬영(영상 또는 사진)
경품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모바일 쿠폰 100명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3082

09 아트센터인천에서 만나는 문화와 예술

아트센터인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성인 강좌]

이현의 미술, 여행이 되다 / 문학수의 클래식 라운지1
일시 : 5월 11일~6월 17일(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대상 : 성인 30명
수강료 : 12만원
문의 : 032-453-7237

[어린이 강좌]

꿈꾸는 음악가
일시 : 5월 8일~7월 24일 오전 10시~정오
대상 : 초등학생 3~6학년(정원 15명)
수강료 : 18만원
문의 : 032-453-7237

[명사 특강]

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담’
일시 : 4월 15일, 5월 13일, 7월 15일, 9월 9일, 11월 11일
티켓 : 전석 2만원
문의 : 032-453-7237

10 찾아가는 ‘아이 사랑 플래너’ 신청하세요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양육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50가정(상·하반기 각 25가정)
기간 :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 ☎ bummo.iccic.or.kr
비용 : 무료
지원 : 양육, 놀이, 건강(운동, 영양) 중 한 분야 전문가(2인)
방문 솔루션 진행(비대면 희망시 촬영 영상을 통한 원격 컨설팅 진행)
문의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032-431-4606~9

11 ‘국내 최초 시립박물관’에서 즐기는 문화

올해 개관 75주년을 맞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전 ‘찰나의 인천’]

사진기자 박근원의 기증 사진으로 바라보는
1970~1980년대 인천
기간 : 4월 6일~5월 30일
장소 :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관람료 : 무료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49

[열린 박물관 ‘졸업 앨범 속 인천 풍경’]

개교 60년 이상 된 학교의 졸업 앨범에 담긴 인천의 공간과 사람
기간 : 6월까지(전시 기간 연장)
장소 : 인천시청역 지하 3층 개찰구 옆
관람료 : 무료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35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인시박 탐험대’]

모집 대상 : 6세~12세 어린이 동반 가족
모집 인원 : 10팀
모집 기간

	교육일	신청일
4월 교육	4월 10일 오후 2시~5시	4월 2일까지
5월 교육	5월 15일 오후 2시~5시	5월 4일~8일

교육 내용 : 개항장 답사와 레고 만들기를 통한 근대 건축물 체험
접수 방법 : ☎ www.incheon.go.kr/museum(선착순)
교육 장소 : 중구 개항장 일원
교육 비용 : 무료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39

새 책 소개

인천이라는
지도를 들고



저자 : 양진채
펴낸 곳 : 도서출판 강
228쪽, 1만3,000원

소설 속 인천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 속에서 펼쳐진다. 소설집 <푸른 유리 심장>, <검은 설탕의 시간>, 장편 소설 <변사 기담>의 저자 양진채 작가가 산문집 <인천이라는 지도를 들고>를 펴냈다. 작가는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소개하며, 작품 속에서 인천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본다. 작품에 따라, 작가에 따라 인천은 각기 다른 서사를 품은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화한다. 윤후명의 장편 소설 <협궤열차>로 시작해 박민규의 장편 소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으로 막을 내리는 <인천이라는 지도를 들고>에는 공식적인 역사에 잘 포착되지 않는 인천의 깊은 이야기들이 소설의 문장들과 함께 펼쳐진다. 글과 함께 실린 다채로운 흑백사진도 볼거리다.

금다래꿈



저자 : 이은혜, 사회적기업 잔치마당
펴낸 곳 : 다인아트
48쪽, 1만9,000원

인천을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 연희단 잔치마당의 어린이 국악극 ‘금다래꿈’이 책으로 출간됐다. 어린이 국악 동화 금다래꿈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해오는 서도 민요를 모티브로 창작한 작품이다. 금다래 할머니가 잃어버린 손녀 ‘분이’를 산속 동물 친구들의 도움으로 찾는다는 이야기로, 동물들이 다양한 전통 국악기를 들고 나와 흥겨움을 끌어올리며 어린이들에게 우리 국악기를 소개한다. 책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금다래꿈 노래 배우기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는데, 민요를 따라 부르며 즐겁게 동화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책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국악기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부록에는 우리나라 국악기와 사물놀이 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2021년 봄 전등사 대웅보전



보물 등 문화재 21점 품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 사찰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전등사傳燈寺는 삼국시대인 381년 아도화상이 지금의 자리에 진종사眞宗寺란 이름으로 창건한 절이다. 이후 1,600여 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最古} 사찰’로 빛나고 있다.

전등사로 이름을 바꾼 때는 1282년 고려 충렬왕(25대)의 비인 정화공주가 옥등을 시주하면서부터다. 공주는 몽골에 볼모로 끌려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며 옥등과 함께 대장경을 봉안한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대웅전(보물 제178호)을 비롯해 약사전(보물 제179호), 철종(보물 제393호) 등 전등사는 보물만 6점을 품고 있다. 여기에 사적 1점과 현왕탱(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3호), 법화경판(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5호) 등 시 유형문화재 7점, 유형문화재 자료 3점, 인천시기념물 3점, 현충 시설 1점 등 무려 21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보물 사찰’이다.

대웅전은 1605년 절반이 불에 탔던 것을 1614~1621년 다시 지은 것이라고 <양간록>은 전한다. 대웅전의 처마 밑 4개의 기둥 모서리엔 두 손으로 처마를 힘겹게 받치고 있는 인형들이 있다. 나부상裸婦像이라 불리는 이 인형들엔 ‘슬픈 로맨스’가 깃들어 있다. 대웅전을 짓던 도편수(목수)는 사찰 아래 숙식을 해결하던 주막에서 만난 주모를 사랑하게 되었다. 믿고 사랑한 나머지 전 재산을 맡겼는데, 어느 날 주모가 돈을 몽땅 갖고 도망가자 평생 처마를 떠받치고 살라는 체벌의 의미로 새겼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그렇지만 나부상의 표정이 익살스러워 원숭이라는 얘기도 전해진다.

전등사를 오르려면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을 지나가야 한다. 정족산성이라고도 부르는 이 산성은 병인양요(1866) 당시 승려, 의병, 관군이 힘을 합해 프랑스군을 물리친 유적지다. 대웅전과 약사전에 무수한 병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동문 앞에 양헌수 장군의 승전비가 서 있는 까닭이다.

병인양요 당시 전등사 스님들은 경내 정족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왕실 문서를 토굴로 옮겨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정족사고의 ‘장사각’은 실록을, ‘선원보각’은 <선원세보>를 비롯한 왕실 족보 등을 각각 보관하던 곳이다. 전국 4대 사고 가운데 가장 방대한 실록과 왕실 서적을 관리하고 있었다. 정족사고의 서적들은 일제강점기 때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옮긴 이래 규장각이 지금까지 1,181책을 보관 중이다. 정족사고는 불에 탔던 것을 복원한 것으로 이따금 전시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등사는 사찰에 있는 건축물과 유물, 유적지 전체가 보물이고 문화재이다.

인천 지명

그 옛날 인공적으로 파낸 ‘굴포천’

‘굴포천’은 한강 하류부에 위치한 한강의 제1지류로, 부평구 일신동 철마산에서 발원해 부평 도심지의 공장 지대를 지나 부천을 거쳐 김포 신곡동 신곡 양·배수장에 이르는 인천에서 가장 긴 지방 하천이다. 인천의 지방 하천인 청천천과 계산천, 굴현천, 갈산천과 함께 실개천인 세월천, 목수천, 산곡천, 구산천 등이 합류해 한강으로 흘러든다.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동부간선수로와 서쪽에는 서부간선수로가 남북으로 축조되어 있다. ‘굴포鰐浦’라는 말은 ‘판 개울’을 한문으로 표현한 말로, 인공으로 팠다는 의미가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 옛날 삼남 지방에서는 정부에 바치는 곡물(삼남미)을 바다를 통해 강화 손돌목을 거쳐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용산으로 옮겨왔다. 그런데 손돌목이라는 곳이 바다 밑에 사슴뿔 같은 암초가 많아 배들이 자주 조난을 당했다고 한다. 고려 고종 때 최충현의 아들 최이라는 사람이 이 위험한 손돌목을 피하기



위해 부평 만월산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해 부평벌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흐르던 하천을 개조하고, 제물포 쪽과 연결해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 개설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300년 뒤인 조선 중종 때에도 김안로라는 사람이 과거 최이의 계획대로 하천을 파기 시작했지만, 원통이고개를 뚫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때 뚫지 못한 곳이 간석이고, 파낸 하천이 지금의 굴포천으로, 당시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옛날 인공으로 파낸 굴포천은 한때 불어졌던 환경오염 문제를 딛고, 현재 인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속적인 재생 사업을 통해 굴포천을 인천 대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 4. 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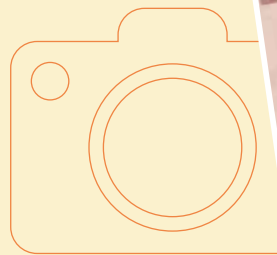
처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불렸던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7주년을 맞았다. 1994년 4월 8일 남동구 예술로에 문을 연 이곳은 오늘날까지 인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며, 문화 도시 인천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립교향악단과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등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공연이 주를 이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봄과 함께 희망찬 기지개를 펼 준비를 마쳤다.

그때, 4월의 인천은...

1882. 04. 06	인천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888. 04. 30	인천공립병원 설립
1892. 04. 30	인천 영화학교 설립
1935. 04. 20	인천공립보통학교 개교
1946. 04. 01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1971. 04. 07	경인 전철 착공식 거행
1986. 04. 08	새얼문화재단 제1회 아침대화 개최
2007. 04. 20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인천 소사

언제나, 봄



사연 유지효(연수구 송도동)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올봄은 예년과 다를 거라 기대했지만, 아직 조금 이른 모양입니다.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멀끔한 송도국제도시를 잠깐 벗어나, 사람 냄새나는 청학동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동네 여기저기, 벌써 봄꽃이 완연했습니다. 키 작은 주택가 담벼락에 누군가 그려놓은 벽화였습니다. 곧 만개할 벚꽃을 기다리듯, 미리 활짝 핀 벽화 앞에 섰습니다. 아마 이곳은 지난겨울에도 봄이었겠지요. 곧 세상은 계절의 옷으로 갈아입고 싱그러움을 뽐낼 것입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오고, 또 새로운 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계절은 바뀌어도 마음만은 늘 따스하기를. 담벼락에 그려진 포근한 봄날처럼, 우리네 삶에 늘 밝은 빛이 내리쬐기를. 그렇게, 언제나 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료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개관 75주년, 인천시립박물관 가는 길



1946년 4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개관한 인천시립박물관의 현재 모습. 사진 왼쪽은 우현 고유섭 동상이고 가운데 열차는 1969년 제작한 협궤열차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현철한 키에 잘생긴 28세의 청년은 1945년 8월 15일 광복하자마자 인천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청년은 부평 조병창에서 중국 철제 종을 실어 오는가 하면 매머드 상아, 자기 파편 등 인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물들을 그러모았다. 개미처럼 수집한 유물은 송학동 세창양행(현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자리) 사택에 보관했다. 그 해 10월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을 세우며 초대 관장으로 취임한 청년 이경성李慶成(1919~2009)은 이듬해 4월 1일 세창양행 사택에서 정식 개관식을 갖는다. 좌우익의 갈등과 불안한 치안. 광복 직후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 박물관 개관은 석남石南 이경성의 애향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물관은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1950년 6월 27일부터 무기한 휴관에 들어간다. 석남은 이때 36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을 인근 방공호와 창고로 대피시킨다. 선견지명. 그해 9월 인천상륙작전 전개와 함께 박물관은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된다. 석남이 숨겨뒀던 유물들은 1953년 4월 1일 새롭게 개관한 제물포구락부로 옮겨진다. 이후 37년간 한자리를 지키던 박물관이 지금의 청량산 자락으로 이전한 때는 1990년 5월이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이후 석남과 같은 개방형 관장 체제를 중심으로 몇 차례 굵직한 도약의 시기를 지나온다. 첫 도약은 2006년 리모델링 뒤 재개관을 했을 때다. 이때 전시실과 수장고를 확

장하고 초대 관장의 호를 딴 석남홀도 마련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전시는 물론이고 음악이 계절처럼 흐르고 유쾌한 논쟁이 펼쳐지는 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인천 화평동 출신 석남 선생을 찾아뵈던 때도 그즈음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봄 새싹처럼 천진무구한 미소를 보내던 선생의 맑은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2015년 제39대 개방형 관장 체제 때 박물관은 재도약의 날개를 단다. 39대에선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미술관을 조성하는 ‘뮤지엄파크’를 추진했으며, 강화도 건평돈대에서 ‘불랑기포’를 발굴하는 등 왕성한 연구 조사로 박물관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2019년 5월 시작,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 제41대 개방형 관장 체제에선 수소문 끝에 대전에 있던 ‘수인선 협궤열차’를 찾아내 기증받았고, 한국이민사박물관에 방치됐던 ‘애니깽’ 기계를 끄집어냈다. 멕시코 한인 이민자의 애환이 서린 유물이다. 최근엔 10억원의 정부 공모사업을 따내고, 석남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란미술관에서 시상하던 ‘석남미술이론가상’을 가져오는 등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상은 개관 75주년 기념식과 함께 인천에서 첫 시상식을 갖는다. 반세기 가깝게 ‘인천의 얼’을 기려온 새얼문화재단은 인천 시민의 뜻을 모아 제작한 우현 고유섭 동상에 이어 석남의 흉상을 2016년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유물은 인류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자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시·공간으로의 여행이다. 지나온 삶과 역사를 잘 이해할 때 우린 더 행복하고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4월 1일 개관 75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 봄 햇살을 받아 더 찬연히 빛나는 이유이다.



인천시립박물관



장수동 은행나무

장수동엔 800살 먹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한자리에 뿌리내리고 800년을 살아온 은행나무입니다.
봄엔 첫사랑 같은 연둣빛 이파리로,
가을이면 금관의 장식 같은 샛노란 잎으로
나무는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높이 28.2m, 둘레 9.1m. 이 은행나무의 크기만 봐도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내왔는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선조들도 이 나무에 당제를 지내고
그늘에서 쉬어가셨겠지요.

이 거목 역시 800년 전 어느 고려인의 작은 소망과 함께
묘목으로 심어졌을 것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에 심는 나무 한 그루가
800년 뒤, 1,000년 뒤 큰 나무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